

동화 심사평*

김진경, 한정기

예년에 비해 응모편수가 84퍼센트나 늘어선지 일정수준의 완성도를 보인 작품들도 많았지만 습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작품 역시 많았다.

92편의 응모작 중 본심에 오른 작품은 <할머니와 자동차><반갑게 안녕><목련꽃 그늘><발야구 주장 강대웅><이름도둑><못 다 쓴 시> 6편이었다. 모두 나름대로 장점을 갖추고 있었지만 고만고만한 문제점도 함께 안고 있었다. 5.18 문학상의 취지에 맞는 민주화정신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시킨 작품과, 문학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작품을 두고 고민하며 의견을 나눈 결과 동화는 주된 독자층이 어린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시나 소설은 성인을 주된 독자로 하는 문학이기에 역사적 사건보다 문학적 완성도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5.18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역사적 사건을 먼저 짚어 줄 필요가 있다는 데서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할머니와 자동차>는 30여년 전 막내삼촌을 낳기 위해 할아버지와 광주 병원에 가는 버스에서 겪은 사건 때문에 차를 타지 못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다. 가족의 역사적 상처가 어린이인 주인공에게 드러나고 인식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깔끔한 작품이었지만 딱 그만큼에서 더 진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반갑게 안녕>은 광주에서 서울로 전학 온 아이가 겪는 이야기다. 광주 5.18문제를 어린이 주인공이 부딪치고 있는 왕따 문제와 연결시킨 점은 좋았는데 결말부분 철물점 아저씨의 훈화조 이야기는 작가의 목소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군더더기였다.

<목련꽃 그늘>은 광주항쟁 때 고문에 저항하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된 아버지를 둔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다. 응모작들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경우 5.18에 대한 인식이 주관성에 갇혀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는데 <목련꽃 그늘>은 미흡하지만 응모자의 인식이 개인적인 주관성을 넘어선 지점에 근접해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문학적으로 순화되지 못한 언어와 초등 6학년인 주인공의 사고라고 보기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문학적인 완성도를 현저하게 떨어트렸다.

<발야구 주장 강대웅>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잘 풀어낸 작품이었다. 능수능란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숨씨나 뛰어난 심리묘사에서 글 쓴 이의 만만찮은 내공을 느낄

수 있었다. 반 대항 발야구시합에서 운동을 잘하는 친구의 일방적인 게임운영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친구를 연습시켜 훌륭한 팀원으로 그 몫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대립인물간의 갈등 해소도 한 개인의 영웅담으로 느껴지지 않고 반 전체의 단합된 이야기로 이끌어낸 점도 5.18의 주제의식을 잘 형상화 시켜 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전의 아동문학 작품에서 다뤄진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과 변별성이 없어 안타까웠다.

<못 다 쓴 시>는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5.18 때 죽은 고모의 방에 들어가 고모가 쓰다 만 시를 발견하는 지유의 이야기다. 할머니가 심는 감자와 고모가 선생님의 책상 위에 꽃을 놓아두고 쓴 시를 문학적 이미지로 형상화 시킨 점이나, 시를 만나 고모의 이야기를 듣는 판타지공간은 매우 뛰어나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러나 그 시골집에서 함께 살았을 아버지가 누나의 방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점이 작위적인 느낌이 들었고 5.18을 소재로 하였지만 주제의식의 부합문제에서는 이 작품 역시 조금 아쉬웠다.

<이름 도둑>은 우선 제목부터가 확 선자를 끌어당겼다. 이름을 도둑맞는 판타지기법에다 전학 온 이름 없는 친구를 미행하며 밝혀지는 미스터리 요소까지, 이야기를 풀어가는 솜씨도 보통 이상의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5.18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 드물게 작가의 생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도 돋보였다. 이름 없는 전학생이 큰아버지라는 걸 밝혀 이야기의 긴장감을 떨어트린 점이 아쉬웠지만 5.18 민주항쟁 때 죽어간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이만큼 문학적으로 그려내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